

수려한 풍광에 깃든 조선시대 작가의 녀

이강로 외의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문학작품은 작자와 독립된 것이다. 전기적 비평은 작가와 작품의 일치를 모색하지만, 서정시의 화자는 작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장편소설의 주인공은 작자의 분신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작자는 작품의 창조자다. 따라서 작품은 또 작가와 분리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학사는 죽은 작가의 열전(列傳)이다. 어떤 작품이 나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면, 나는 그것의 창조자가 한없이 궁금해진다. 하지만, 그는 죽고 없다. 그리해 작가가 살았던 공간, 작품을 생산한 공간, 혹은 작품의 대상 공간을 찾아다니며, 창작의 이면을 엿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학기행’이란, 죽은 작가와 관련된 희미한 흔적 속에서 작가와 작품을 나의 상상력으로 책임 없이 해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책임 없는 상상력이기에 무한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시인사)는 이강로·장덕순·이경선 세분의 원로 국어학자·국문학자가 전국의 누정(樓亭)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걸린 기문(記文)과 시(詩)를 찾아 모아 번역하고 해설한 것이다.

문학 창작의 공간은 일정한 곳일 수 없다. 그 곳은 사랑일 수도, 서재일 수도, 아니 측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누정인가? 풍광이 수려한 곳에 남아 있는 옛 누정은 거의 조선시대에 지어진 것이다. 사대부들은 이곳을 대상으로 기문을 쓰고 가사를 지었으며, 혹은 이 곳에 모여 한시를 짓고, 시조를 음영했다. 누정이야말로 창작의 주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문학기행의 적실한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책은 일반적인 문학기행서와는 사뭇 다르다. 전국의 주요한 누정을 뽑고, 그곳에 걸린 기문과 시를 친절하게 번역해 모아놓은 일종의 자료집이다. 송 순의 ‘면양정’, 정 철의 ‘송강정’, 양산보의 ‘소쇄정’ 등 이름난 누정은 이곳에 오롯이 모여 있다. 답사를 가시려거든 이 책을 들고 가시어 옛 작가들의 정서를 느껴 보실 것을 권한다. ●

옛사람들의 삶의 무늬를 만나다

정병헌 외의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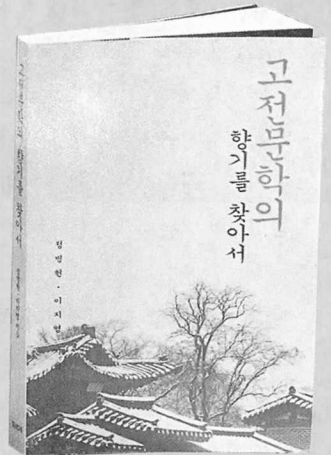
정희일 | 여행작가

아무리 바쁜 시대라고 해도, 저마다 가꾸는 사색의 오솔길은 있게 마련. 그 길로 들어서면 이름 없는 들꽃 하나에도 걸음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 지칠 때 슬며 옛날이 그리워지곤 한다. 과거는 흘러가 버리고 티끌처럼 흩어졌다지만, 이 땅 어딘가를 헤집으면 숨겨진 그 흔적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나에게 또 다른 길을 만들어준다.

나는 그 길을 걸을 때면 옛사람들이 촘촘하게 짜놓은 삶의 무늬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고는 한다.

과거를 찾아가는 지름길이 책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들녘의 비바람에 나부끼는 들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옛 사람들이 삶 속에서 우려낸 정신의 향기를 음미하고 싶을 때 나는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정병헌 외, 돌베개)를 펼치곤 한다. 옛사람들이 온 삶을 바쳐 그려냈던 고전문학을 펼치면 그 삶의 무늬들을 만날 수 있다. 옛 문학을 찾아가는 길은 바로 그 삶의 무늬들을 짜냈던 인물과의 만남으로 어우러지는 여정. 하여 고전문학의 작가들을 찾아가는 여정은 과거 속의 나를 만나 지금의 이정표를 다시 한 번 묻는 시간이다.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에서는 모두 13명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저마다 독특한 색깔과 내음을 풍긴다. 1부에는 고려시대 최고의 문장가 이규보를 비롯해 김시습·허균·허난설헌·정약용, 2부에는 균여대사·일연·이황·이이, 3부에는 송순·정철·윤선도·신재효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펼쳐진다. 그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들이 드리운 그늘 아래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정신세계에 젖어들면, 내가 밟던 디고 선 세상을 펼쳐두고 때론 찬탄의 시선으로, 때론 슬픔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어 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어제를 바라본 만큼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믿음이 짝든다. ●



돌베개/A5신/356면/9500원

한 시인이 펼치는 시의 '만화경'

신경림의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전남진 | 시인

시인을 찾아가는 기행은 주로 시인의 끝자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끝자리란 시인이 남긴 시 가운데 시인을 기억하기 가장 좋은 한편의 시가 돌 속을 차고 앉은 시비를 말한다. 육신의 무덤보다 먼저 찾아가게 되는, 마치 시인의 마음속을 인두로 지저놓은 듯한 몇 개의 글자들. 시비를 보며, 시인은 시로 남는다는 단순한 명제의 단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가 아닐까.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신경림, 우리교육)는 시비에 새겨진 시와 시인의 삶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시세계를 해설한다. 충북 옥천군 옥천면 하계리 체육공원에 있는 〈향수〉(정지용),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마을입구에 세워진 〈빛을 찾아가는 길〉(조지훈),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네 눈망울에서는〉(신석정), 광릉수목원 임협시험장 앞 길가에 서 있는 〈북치는 소년〉(김종삼), 대전 보문산 사정공원에 있는 〈저녁눈〉(박용래), 탄금대에 있는 〈감자꽃〉(권태웅), 전남 강진 도서관 소공원에 있는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등. 이렇게 시인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비다. 시비는 곧 시인이 가장 아끼던 곳이거나 시인을 아끼는 사람들이 시인을 떠올리기 가장 좋은 곳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인의 고향뿐만 아니라, 시인이 작품을 많이 썼던 곳이나 말년에 정착해 살던 곳에 시비가 세워진 경우도 많다. 또한 시의 의미가 살아있는 장소에 세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기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시는 시인의 상상의 산물만이 아니라, 시인이 보고 느끼고 울고 웃고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불렀던 노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엮은 신경림 시인은 여는 글에서, “시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그 시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조건 아래서 살았으며, 그 시를 쓸 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한 “나는 이 기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시를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구나, 새삼스럽게 감탄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책 속에서 만나던 시를 시인이 살았던 곳에서 시인의 눈으로 만나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이 책은 임 화처럼 냉전의 상처로서 아직 시비가 세워지지 못한 시인들이 있어, 이념의 대립이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새삼 느끼게 해준다.●

“그 여행의 종착역은 바로 나였다”

박완서의 《한 길 사람 속》

이영임 |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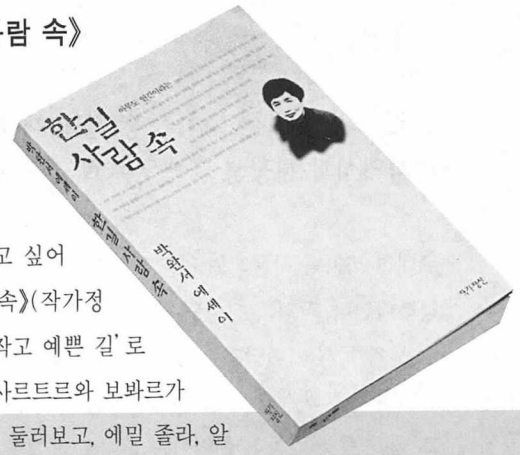
유럽의 문호들을 만나고 싶어 박완서의 《한 길 사람 속》(작가정신)을 길라잡이 삼아 ‘작고 예쁜 길’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사르트르와 보파르가 잠든 몽파르나스 묘지를 둘러보고, 에밀 졸라, 알렉산더 뒤마, 공쿠르 형제가 묻힌 몽마르트르 묘지를 지날 때까지 그 길은 가벼운 휴식 같았다.

위고 기념관에서 지은이는 자신을 문학의 길로 이끌어준 빅토르 위고를 “열두 살 소녀에게 문학에 눈을 뜨게 해준 친절한 할아버지”라고 회상한다. 그리고 《레 미제라블》을 처음 읽고 난 뒤 느꼈던 ‘낯설음’이 문학의 본질에 대한 어렴풋한 각성이었다고 술회한다. 또한 위고와 발자크의 작품 속 주인공들의 매력을 비교했다. 그는 위고의 주인공들의 매력이 비현실적인 영웅다움에 있다면, 발자크의 주인공들은 여전히 현대 시민사회에서 유효한 인간상이라고 말한다. 이런 지은이의 고견을 듣는 것도 문학기행에서 만난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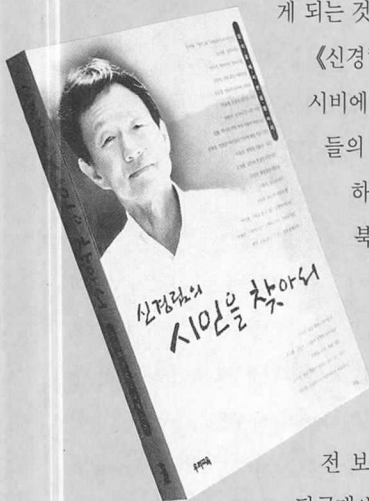
그런데 룩셈부르크에 가서는 달랐다. “남들은 대 시인이 잠시 들렀다 간 곳에도 기념관을 만들어 자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는 대목부터 목이 메이기 시작했다. 우리말을 절차탁마해 우리 정서를 노래한 시인들과, 뼈를 깎아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증언한 작가들. 우리에게 그들의 흔적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 때문이었을까? 지은이는 피테 기념관에서 느닷없이 정지용을 경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무거워진 발걸음은 하이네의 고향이자 독일여성운동의 발상지인 뒤셀도르프로 향했다. 뒤셀도르프에서 지은이는 뿔속까지 시리게 춥다고 했지만, 나는 ‘뷰허길테’ (책클럽)에서 운영하는 책방을 보고 뿔속까지 스미는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뷰허길테는 질적으로는 물론 장정까지도 우수한 책을 엄선해서 취급하는 곳으로 그런 책클럽은 독일 전역에 퍼져 있다고 한다. 최소한 4개월에 한 권씩 책을 살 의무가 있는 회원수도 어마어마하다니 작가의 아주 사소한 흔적까지도 열심히 보존하고 아끼는 그들의 국민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책 전체가 문학기행으로 짜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길지 않은 열세 편의 문학기행은 고즈넉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줬다.●



작가정신/A5신/318면/7500원



우리교육/A5신/352면/8000원